



에몬스가구 김경수 회장(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부터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인증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에몬스, 생활가구 1위 등극

에몬스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생활가구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Korean Standard Premium Brand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로 브랜드의 강점, 약점 및 경쟁적 위치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가치까지 진단해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지수다.

올해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총 144개 부문의 42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84만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편익, 마켓 리더십,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 사회적 책임 등 6개 차원의 브랜드 에퀴티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에몬스가구부는 생활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1위 기업에 뽑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노비즈협-경기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맞손'

이노비즈협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등 기반마련 협력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취득 확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상호 정보 교류 및 정책 홍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왼쪽)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서울중기청 日 수출규제 中企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캐치업 등 통관절차 및 대응방향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선 전문기관별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상담한다.

상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두루 참가한다. /김승호 기자

“사람-기술 유연하게 잇는 디자인 목표”

여성기업 인터뷰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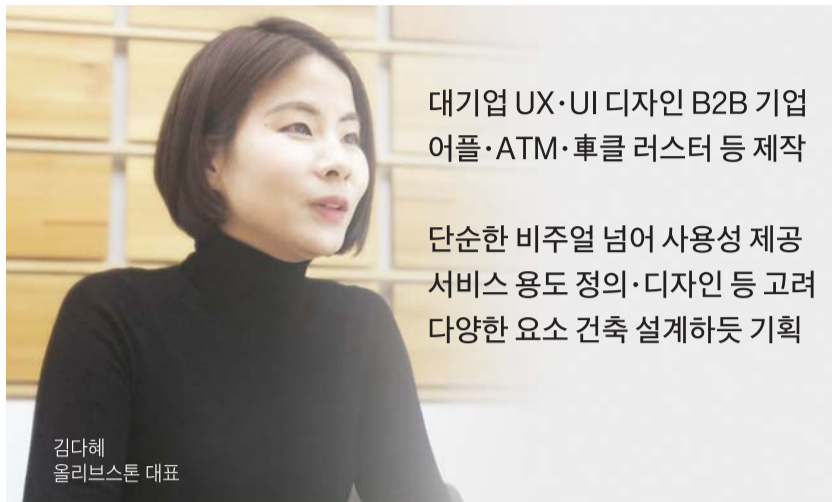
“디자인은 솔루션이에요. 단순히 예쁜 거라고 하기에는 그 설명이 너무 가벼워요. 가끔 고객들을 만나면 ‘A가 예뻐 B가 예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쁘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디자인은 과정입니다. 저희와 클라이언트가 찾아낸 가치를 정리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올리브스톤의 디자인 철학을 묻자 김다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디자인을 ‘예쁘다’로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다. 회사의 철학을 담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디자인을 만드는 UX/UI 디자인 회사 올리브스톤을 만나봤다.

◆경험을 설계하는 UX/UI 디자인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올리브스톤은 국내 대기업의 UX/UI 디자인을 담당하는 B2B 기업이다. 현재 약 10~15개 협력업체와 일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부터 디지털TV(DTV), 자동차 클러스터, ATM,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UX/UI 디자인을 만든다.

UX(User Experience)는 사용자 경험이란 뜻으로,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나 제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쓰면서 느끼는 경험이다.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며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대기업 UX·UI 디자인 B2B 기업 어플·ATM·차클 리스터 등 제작

단순한 비주얼 넘어 사용성 제공 서비스 용도 정의·디자인 등 고려 다양한 요소 건축 설계하듯 기획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을 의미한다. 올리브스톤은 이런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폰의 아이콘 배치부터 앱 메뉴까지 다양한 요소가 UX/UI의 범위에 들어간다.

“각 디바이스의 성향이 중요해요. 자동차에 모바일 용 디자인을 얹으면 없어 보여요. 모바일에 TV용 디자인을 넣으면 해상도와 크기가 달라 쓸 수 없죠. 디바이스의 성향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낼 방법은 경험뿐인 것 같아요. 저희에겐 7년간 다양한 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을 찾는 경험이 쌓여있어요.”

올리브스톤의 이런 노력은 2018년 초 금융기관과 만든 모바일앱과 스마트폰 ATM로 받은 ‘iF디자인 어워드’ UX 부문 본상으로 돌아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

tional Forum Design)이 주는 상으로 미국의 IDEA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디자인 시상식이다.

◆디자인은 하나의 솔루션

김다혜 대표는 고객사가 가진 성향, 고객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서비스를 통해 풀어나고 싶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리브스톤의 디자인이라 설명한다. 김 대표는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로 풀어내는 ‘솔루션’이 바로 디자인이라 말한다.

“디자인은 그저 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솔루션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고객사가 해당 사업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지요.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비주얼 디자인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UX/UI 디자인의 역할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여 가장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거죠. 예전에는 비주얼 디자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UX/UI 디자인은 소비자가 사용을 해내는 순간까

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올리브스톤은 디자인·개발·기획자가 한 팀을 이뤄 하나의 디자인을 내놓는다. 약 25명의 인력 중 10명이 디자인, 7~8명이 기획, 나머지가 개발을 맡는다. 김 대표는 약 3년 전부터 개발 인력을 회사에 들였다. 기계 안에서 서비스 동작까지 확인하는 순간까지를 디자인의 개념을 보기 시작하면서다.

“건축 설계와 비슷해요. 처음에 이 서비스의 용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어디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 건축 도면 그리듯 기획합니다. 거기에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집어넣고 포인트를 줘서 매력을 끌어올릴지 디자인 인력이 결정하구요. 거기에 개발 인력이 해당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합쳐져 하나의 앱이 나오게 되죠.”

김다혜 대표는 올리브스톤을 사람과 기술을 유연하게 이어주는 디자인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여러 기술과 솔루션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사용자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는 손에 잡히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연결고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UX/UI 디자인으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목표예요. 올리브나무처럼 유연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단단한 돌(스톤)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일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신보, 복지부 등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맞손

사회공헌활동 확산 도모

신용보증기금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지역사

회공헌 인정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공헌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회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보증심사시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료 할인(보험료의 10%) ▲경영컨설팅 비용 할인(총비용의 10% 수준) ▲기업연수기회 우선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희주 기자

국민연금 해외수탁은행 'SSBT' 전주에 지방 첫 사무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가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소를 통해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지원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이미 서울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은 국민연금 해외주식·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업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외투자자산미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는 전 세계 100개 국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리, 투자운용, 리서치 및 트레이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3월 말 기준 수탁서비스 규모는 32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김성주국민연금이사장은 “국민연금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공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캠코, 부산서 '희망울림 FC' 어린이 축구캠프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 기장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지역 6개 초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참여하는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축구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5월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어린이 축구단 발대식을 가진 이후 축구복·축구화 등 축구용품을 지급하고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의 전문 코칭스태프가 지도하는 '주 1회 축구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캠코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아이파크 클럽하우스와 기장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캠코 희망울림 FC 3기 축구캠프'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네번째줄 가운데)과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